

# 실크로드에 민간외교 펼칠 한·중앙아문화교류협회 창립

초대회장에 이옥연 (주)베델컴 대표



드넓은 사막을 지나 해발 5000m가 넘는 텐산 산맥을 넘으면 그야말로 시야가 확트인 카자흐스탄의 초원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예로부터 옛 실크로드의 관문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던 곳이다. 한때는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후에는 카자흐스탄만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대통령인 니자르바예프(Nazarbayev)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체제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지만 얼마 전부터 학술문화교류를 비롯해 무역도 활기차게 진행 중이다.

(주)베델컴을 운영하는 이옥연 회장은 지금까지 '한-카자흐스탄친선협회'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한-중앙아시아교류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같은 민간외교 활동에 나서게 된 데는 국문학을 전공한 이력 때문이었다. 학술교류관계로 자주 중앙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던 중 낙후된 우리 민족에 아쉬움을 느꼈고, 그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2년 전부터 문화산업의 전방에서 활동해 온 한·카자흐스탄 친선협회가 지난 시간의 놀라운 성과와 더불어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크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아우르는 ‘한-중앙아시아 교류협회’로 거듭났다. 2006년부터 새롭게 도약하는 교류협회의 활동을 돌아본다.

### 새로운 문화의 문을 열다

1994년 한국 외교통상부의 법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카자흐스탄친선협회’(회장 이옥연)는 카자흐스탄에 퍼져 있는 고려인의 생활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협회는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조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의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사람들과 어우러진 하나의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한-카자흐스탄친선협회’는 국내인들에게 낯선 땅이었던 카자흐스탄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장을 모색 중이던 국내 기업인들에게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에 기대를 갖게 했다. 그곳의 풍부한 자원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능성은 많은 기업인들을 매혹시켰고, 그 기대는 다시 ‘한-카자흐스탄친선협회’로 모이게 하는 촉매제가 됐다. ‘한-카자흐스탄친선협회’의 꾸준한 활동은 기업인들과 이주된 고려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또 연이어 중앙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까지 그 활동반경이 확대되었다.



지난 2005년 6월1일부터 3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도서인쇄전 개막식 모습

2005년 12월에는 폭넓은 민간외교를 위해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한-중앙아시아문화교류협회’(회장 이옥연)를 승인 받았고 동월 26일 현판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다.

###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전진기지

‘한-중앙아시아문화교류협회’는 10여 년간의 활동에 대한 인정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협회는 카자흐스탄공화국,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봉사하면서 점차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그동안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단절된 문화에 한-카자흐스탄친선협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물을 전해주었고, 한편으로는 선구자적인 입장이 되어 지역사회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다. 카자흐스탄공화국을 비롯해 주변 중앙아시아 지역은 우리와 인종적, 문화적으로 비슷해 비교적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 사회에 뿌리내린 일제시대 강제이주민인 고려인들이 있었기에 더욱 빠르게 스며들 수 있었다.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협회

협회는 그동안 다양한 민족행사를 동포와 현지인들과 함께 했다. 한복입기를 좋아하는 고려인들에게 한복 500벌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한 대통령부인이 운영하는 보베크재단에 비상약과 장난감, 의류 등을 지원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민족, 종교, 사회를 넘어 그곳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으로는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도 도왔다. 우리 민족이 이주하고 정착하기까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곳곳에 비석을 세워 뼈아픈 과거를 위로했다. 또 사진전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알렸다. 매순간 그들의 아픈 역사를 함께 느끼려고 했고, 그 마음을 멀리 떨어진 고국에 전하고자 노력했다. 협회는 그동안의 활동에서 보여주듯이 끈끈한 한민족의 교량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잊혀진다는 서러움을 잘 알고 있다. 먼 이국의 땅에서 잊혀져 가는 한민족의 역사, 그것에 대한 오늘의 의미를 찾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했다. 그결과 이제 카자흐스탄에 진출중인 인쇄인과 기업인들은 그곳 사람들과 함께 하며 중앙아시아로 가는 큰 문을 열 수 있었다.

## 급변하는 중앙아시아 인쇄시장

‘한-중앙아교류협회’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민간차원에서 외교를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 있다. 정부주도하에 이뤄지는 외교에 비해 거부감이 없고 깊은 곳까지 스밀 수 있어 그 부가적인 효과가 크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 실패할 확률이 비교적 적다.

다만 지금까지의 인쇄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이 정부주도하에 이뤄져 왔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낯설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중앙아시아 시장을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다르게 출판·인쇄관련업은 조금씩이긴 하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역적, 민족적 유사함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을 교류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기록, 인쇄, 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앙아시아는 자국의 인쇄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의 높은 인쇄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어 시장진출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카자흐스탄 출판서적판매협회 (Association of Publishers and Booksellers of Kazakhstan)의 전시회 성과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한국관은

교학사, 보진재, 타라티피에스, 한구아시아 등 4개 업체가 직접 참가했는데, 첫 출품한 서적이 ‘최고인쇄품질상’으로 선정되는 등 그 반응이 뜨거웠다. 한국인쇄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시회의 효과덕분에 카자흐스탄의 출판인쇄, 상업인쇄 시장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비록 출판, 인쇄가 국가 통제하에 있어 민간기업이 전무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외국자본과 합자회사 형태로 인쇄사들이 설립될 예정이어서 국내업체들의 진출가능성이 높다.

## 무한한 가능성의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이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자원부국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CIS지역과의 연계성,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협력기구 진출 등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중앙아교류협회’는 이제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민간교류의 밑바탕은 바로 지역사회의 호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이옥연 회장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협회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 그 여파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에서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으로 번져나갈 것이며, 양국은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무한한 가능성의 가운데 자리한 ‘한-중앙아교류협회’의 값진 민간교류 성과가 다양한 경제교류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삼기자 sang@print.or.kr

지난 2004년 11월 12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사진으로 보는 한인 이민사와 카자흐스탄'에 참석한 이옥연 회장.

